

○ 올해 지자체 재정자립도 평균 48.7%...지자체 살림살이 팍팍

- 30% 미만인 지자체도 전체의 71%인 173곳
 - 이중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63곳
- 수도권 대 비수도권 등 지역별 편차 확대 및 불균형 심화
 - 서울이 80.6%로 가장 높았고 세종 64.0%, 경기 63.7% 순
 - 강원(28.3%)과 전북(27.7%), 전남(27.1%)은 하위권을 기록

○ 연도별 재정자립도 매년 하락세 ... 50% 미만은 97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

- 문정부 집권 첫해인 2017년(53.7%) 대비 5.0%p 하락
 - 2018년 53.4%, 2019년 51.4%, 2020년 50.4%
 - ※ 출처 : 행정안전부, '2021년 지자체 통합재정 개요'

○ 지방분권과 지방 재정 자립을 강조하는 문 정부에서 재정 자립도 역주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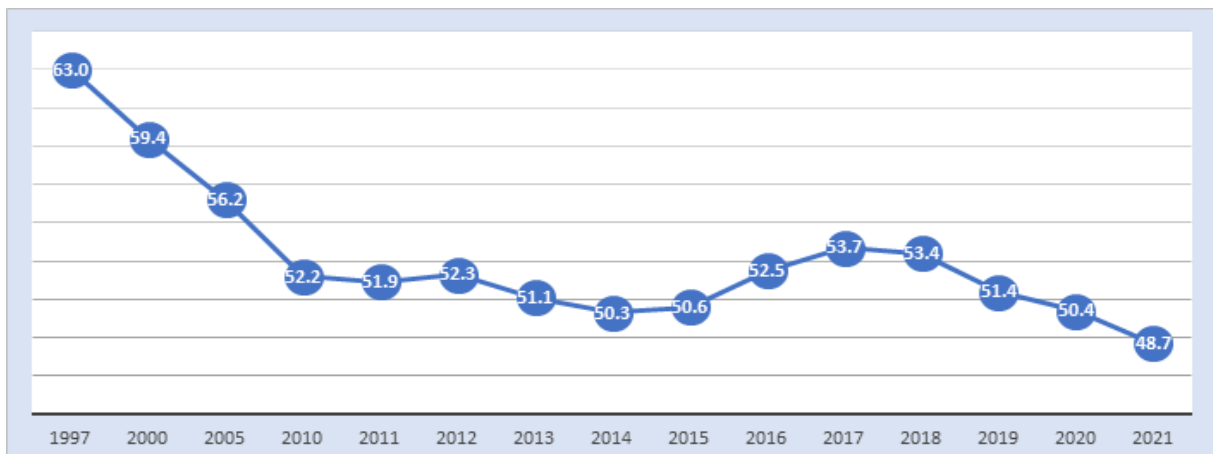
- 일부 지자체의 경우 선심성 현금 복지를 남발한 탓
 - 어린이 용돈 월 2만원(대전 대덕구), 대학등록금 200만원(경기 양평군), 청소년 수당 월 7만원(경남 고성군) 등
- '현금 퍼주기'를 방지하는 중앙정부의 책임도 큼
 - 지자체의 현금복지를 단순 요건만 갖추면 허용

○ 지자체 재정자립도 향상 방안

- 세금과 규제 차별화를 통해 지자체간 경쟁할 수 있는 구도 필요
 - 지자체의 재량예산을 늘려주고 자체적인 세율조정 등의 권한이 주어져야 함
- 예산 투입 전에 사업과 정책 기획 단계부터 세밀히 따지는 제도적 장치 마련

〈그림 1〉 올 지자체 재정자립도 평균 48.7%...50% 미만은 97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

단위: %



〈그림 2〉 지자체 재정자립도...수도권 대 비수도권 등 지역별 불균형 심화

단위: %



자료: 지방재정365, 지방재정전문통계

https://lofin.mois.go.kr/websquare/websquare.jsp?w2xPath=/ui/portal/gongsi/sd002_tg001.xml

주: 당초예산, 일반회계기준